# 운흥사와 화사 의겸에 관한 고찰
# (雲興寺　畫師 義謙　　考察)

李 殷 希
(文化財硏究所)

차 례

Ⅰ.머릿말
Ⅱ.雲興寺의 沿革
Ⅲ.雲興寺의 所藏佛畫
Ⅳ.畫師 義謙의 畫風
Ⅴ.맺는말

## Ⅰ.머리말

우리나라 사원에는 많은 불화가 모셔져 있으나, 불화를 그린 스님인 화사(畫師)에 관한 기록은 부족한 편이다. 다만 화사들의 명칭은 금어(金魚) 화원(畫員) 화승(畫僧) 선화(善畫) 경화(敬畫) 양공(良工) 편수(片手) 도편수(都片手)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화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기타 문헌자료에 의해 고구려(高句麗)의 담징(曇徵). 백제(百濟)의 인사나아(因斯羅我) 아좌태자(阿佐太子) 백가(白加) 신라(新羅)의 솔거(率居), 고려(高麗)의 노영(魯英) 혜허(慧虛) 혜근(惠勤) 등을 찾을 수 있으나, 그들이 그린 작품은 고려 불화 이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태종(太宗)의 오교양종(五敎兩宗) 혁파(革罷), 세종(世宗)의 선종양종통합(禪宗兩宗統合) 등 불교억압정책이 있었으나 세조· 명종때에는 왕실 내지 귀족층 일부에서의 불교를 신봉하여 불상 및 불화를 조성했었다. 특히 명종 때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숭실정책으로 승려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경제도 전성기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하여 승병의 본거지였던 사원이 대부분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영(英)· 정조(正祖)에는 많은 사원이 중창 또는 중건되어 이에 따른 많은 화사들 또한 조직을 이루어 불상과 불화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사들이 어떤 조직을 형성하여 어떻게 계승해 나갔는지에 관한 문헌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화기(畫記)의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에 의해서 화사계보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조(正祖) 18年(1974)부터 시작된 수원성곽(水原城郭) 축성공사때에 46명의 화원이 동원되었는데, 이 중 40명이 스님이었다는 사실은 국가적인 공사때에 많은 화사들이 동원되었고 많은 화사들의 조직이 지역마다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본고(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겸(義謙)이란 화사는 불화조성 전성기인 18세기 중

엽에 즉 숙종(肅宗)에서 영조(英祖)에 이르는 시기에 활약한 인물로 운흥사(雲興寺), 청곡사(靑谷寺), 안국사(安國寺), 개암사(開巖寺) 등 대작(大作)의 괘불(掛佛)과 많은 불화를 그려 당대(當代)에 '존숙(尊宿)'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름이 높았던 스님이다.
또한 그의 독특한 화풍과 유파계보는 조선후기(朝鮮後期) 불화유파에 따른 불화양식을 밝히는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사로써 주목된다.

운흥사(雲興寺)는 의겸의 활동무대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원에서 활약한 본거지로 보여지나 안타깝게도 이를 밝힐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1719년과 1730년에 조성된 불화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사찰이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난의 피해가 매우 심한 곳이기도 하다.

이 글은 운흥사에 소장된 불화를 소개하면서 의겸의 화풍을 밝히려는 시도로써 나아가 조선시대 화사유파계보를 밝히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조사시에 도난의 피해에서 귀중하게 보관된 불화를 보여주신 운흥사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

## Ⅱ.운흥사(雲興寺)의 연혁(沿革)

운흥사는 경상남도(慶尙南道) 고성군(固城郡) 고성읍(固城邑) 하이면(下二面) 와룡리(臥龍里) 와룡산(臥龍山) 동북쪽 향로봉에 위치하고 있으며, 와룡산(臥龍山)은 마치 용이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와룡(臥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1] 사전(寺傳)에 의하면 신라 (新羅) 문무왕(文武王) 16年(676)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여 고려(高麗) 충정왕(忠定王)2年(1350)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승군이 주둔하여 호국가람사찰의 면모를 갖추었고 그후 효종(孝宗) 2年(1652) 법성(法性)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 성종(朝鮮 成宗)때 발간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 고성군(固城郡) 사찰조(寺刹條)[2]
운흥사(雲興寺) 좌와룡산(左臥龍山)
『가람고(伽藍考)』
재경상남도고성군와룡산(在慶尙南道固城郡臥龍山)
『태령지(太嶺志)』
재고성군하이면와룡산 대본사통도사말사(在固城郡下二面臥龍山 大本寺通度寺末寺)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 운흥사(雲興寺)[3]
고려충정왕이년 경인초창 조선효종이년신묘금법성중창
(高麗忠定王二年 庚寅初創 朝鮮孝宗二年申卯金法性重創)
『고성현읍지(固城縣邑誌) 불우조(佛于條)[4]
운흥사 재와룡산(雲興寺 在臥龍山)
등의 기록으로 보아 임진왜란후에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은 삼천포시(三千浦市)에서 8㎞ 떨어진 지점으로 남해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을 도와 승군(僧軍)

1) 『한국지명총람』,8(경남편 Ⅰ), 한글학회, 1979, 225~226쪽
2) 『(輿地圖書)』 慶尙道 固城郡 寺刹條
3) 權相老, 『韓國寺刹全書』.東國大學校 1979.896쪽
4) 『邑誌』 1, 慶尙南道編①, 韓國地理叢書, 1982.

6,000명을 운흥사(雲興寺) 보제주(普齊樓)에 주둔시켰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고성군 일대가 승병의 근거지로 전쟁에 의해 거의 초토화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호국가람(護國伽藍)의 대사찰(大寺刹)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5]

<와룡산운흥사대웅전개금중수기(臥龍山雲興寺大雄殿改金重修記)>(1740年)나 <운흥사극락전창건기(雲興寺極樂殿創建記>(1777年)에 의하면 천계(天啓) 4年(1624)에 혜명당(慧明堂) 석주(釋珠)가 대웅전(大雄殿)을, 숭정(崇楨)8년(1635)에 여여당(如如堂) 승안(勝安)이 극락보전(極樂寶殿)을, 경희(慶熙) 21年(1681)에는 성오도인(性悟道人)이 각황보전(覺皇寶全)을 건립하였다고 한다.[6] 승안(勝安)은 인접지역인 고성군 옥천사(玉泉寺) 법당(法堂)을 1660년에 조성하였다고 하는데,[7] 이 운흥사는 옥천사와 함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1600년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는 아전대루(鵝殿大樓), 좌우앙로(左右鴦盧), 동서익실(東西翼室), 강당(講堂), 종각(鐘閣), 봉방(峰房) 등의 많은 전각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대웅전(大雄殿), 영산전(靈山殿), 명부전(冥府殿), 보광전(普光殿)만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운흥사가 사원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1600년대에 혜주(慧珠), 승안(勝安) 등의 스님에 의해 중창되었고, 1700년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즉 대웅전(大雄殿)의 개금불사(改金佛事), 불화(佛畫)와 괘불조성(掛佛造成)등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언제 어느 연유로 인해서 황폐해져 지금과 같은 규모로 축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

## Ⅲ. 운흥사(雲興寺)의 소장불화(所藏佛畫)

### 1) 영산전(靈山殿)

영산전(靈山殿)에 소장된 불화는 경희(慶熙) 8年인 숙종(肅宗) 45年(1719)에 조성된 것으로 중앙에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중심으로 좌우에 팔상도(八相圖) 8폭이 배치되었는데, 현재 영사회상도는 보광전(普光殿) 요사체에, 팔상도 8폭 중 7폭은 도난 당하고 1점만이 보광전(普光殿) 요사체에 보관되어 있고,현재 영산전 내에는 나한상(羅漢像)만이 모셔져 있다.

①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圖1)

영산회상도는 불교의 교주인 석가불이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하는 법회모임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크기는 길이 270㎝ 폭이 228㎝ 비교적 긴 화면인데 숙종 45년(1719)에 조성된 불화이다.

중앙에는 이중윤광(二重輪光)의 광배를 갖춘 석가불이 높은 수미단(須彌壇)위에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하고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자세로 장중하게 앉아 있다. 석가불의 모습은 자그마한 얼굴, 당당산 상체에 듬직한 하체가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갸름한 얼굴에 뾰족한 육계의 표현과 작은 이목구비(耳目口鼻)의 묘사는 단아한 인상을 풍기게 하며, 통견의 불의(佛依)안에 승가리와 옷 끝단에 표현된 꽃무늬 등은 간략화시켜 당시 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석가불 무릎아래에는 문수(文殊) 보현(普賢) 백의관음(白衣觀音)을 비롯한 8대보살이

5) 安啓賢,“朝鮮前期의 僧軍” 「東方學志」 13,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1972.59쪽
6) 『朝鮮寺刹使料』 朝鮮總督府, 1911.588~591쪽
7) 金延禧,“固城 玉泉寺 冥府殿 圖像의 硏究” 「精神文化硏究」 v.32. 1987.256~258쪽.

횡렬로 서 있고, 제석(帝釋)과 범천(梵天)이 조금 위에 배치되어 있어 상승효과를 보여준다. 좌우 끝단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이 2구씩 배치되어 있다.

석가불 어깨 좌우로 10대제자를 비롯한 많은 나한(羅漢)들이 자유스런 포즈와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아난(阿難)과 가엽(迦葉)만이 원형두광을 갖추고 있다.

나한(羅漢)무리 위에는 타방세계불(他方世界佛)과 분신불(分身佛)이 있고 그 위로는 눈을 부릅뜨고 무기를 든 팔금강(八金剛)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든 신장상(神將像), 용녀(龍女)와 용왕(龍王)들이 많은 신중(神衆)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불화는 장방형의긴 화면을 적절히 이용한 도구를 보여주는데 석가불은 화면에 비해 비교적 작게 묘사했고 호위하는 신장무리 나한무리 청문무리 등까지 개성있는 상호와 자유스럽고 독특한 표정과 동작을 그렸다. 즉 상하단을 구분하여 상단은 복잡하고 하단은 간략하게 묘사하여 긴 화면에 어울리는 많은 무리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번잡스럽지 않다. 석가불이 많은 청중에게 법문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어 뛰어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짙은 홍색과 양녹색의 강한 보색의 굵고 가는선을 적절히 사용한 필선이 화면 전체를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

②팔상도(八相圖)(圖2)

팔상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집약해서 그린 그림으로

제 1도 두솔래의상(兜率來儀相)-두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제 2도 비람항생상(毘藍降生相)-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제 3도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4문에 나가 관찰하는 모습

제 4도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제 5도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제 6도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보리수아래에서 첫 설법하는 모습

제 7도 비야전법상(毘野轉法相)-보리수아래에서 마군에게 항복받는 모습

제 8도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하는 모습

등의 여덟장면을 8폭에 그린 것이다.

크기는 길이 155㎝ 폭 148㎝으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데 제4도인 유성출가상의 경우는 하부가 박락되어 상부만이 겨우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팔상도의 특징은 쌍계사 팔상도(1728년)와 같이 복잡한 구도를 보여준다. 화면에 여러 장면을 나타내고 여기에 많은 인물을 묘사했기 때문에 복잡하나, 공간을 구름과 암산, 수목, 기암괴석, 성벽으로 처리하여 공간구성이 번잡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인물의 모습은 단아한 얼굴에 각인물에 어울리는 개성있는 표정을 살렸고 의습등을 분명한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거기에 어울리는 성(城), 수목, 암석 등 기타 대상물을 분명한 형태로 구성시켜 화면전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제3도 사문유관상의 경우에는 4장면을 즉 동문, 남문, 서문, 북문에서의 생노병사(生老病死) 장면을 상단에서는 암산과 기암괴석으로 좌우면을 구획하고 하단에는 성벽과 큰 나무 한 그루로 구획함으로써 복잡한 공간을 번잡스럽게 보이지 않는 효과를 주고 있다.

제8도 쌍림열반상에서는 사라쌍수 나무아래에 길게 누워 열반한 부처님과 비탄에 잠겨있는 대중들의 모습 장면, 금관에 입관된 부처님과 비통한 모습의 노가엽(老迦葉)의 장면은 하단에 그렸다. 그리고 상단에는 다비장면과 사리를 차지하려는 8대왕들의 다툼장면을 표현했는데 중간의 공간을 구름 등으로 처리하여 역시 번잡스럽지 않다.

거기에 짙은홍색과 양녹색, 황토색의 조화를 이루고 군데군데의 금색 사용 등이 선명

한 채색은 이 불화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암산과 기암괴석의 표현, 수목의 가지와 잎사귀의 표현은 17, 18세기의 유행한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實景山水) 화풍을 엿볼 수 있어 당시의 일반회화와의 밀접한 영향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대웅전(大雄殿)

대웅전(大雄殿)에는 삼불회도(三佛會圖)와 감로왕도(甘露王圖),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 등의 불화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삼불회도 중 영산회상도는 도난 당하고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 ,감로왕도, 삼장보살도는 보광전 요사체에 보관되어 있고, 극락회도(極樂會圖)와 관음보살도만이 도난방지를 위해 유리판안에 씌워져서 봉안되어 있다. 모두 옹정(雍正)8年, 영조(英祖)6年(1730)에 조성된 불화로 보존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박락이 심하다.

①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 (圖3)

약사불은 약사류유광여래(藥師瑠琉光如來)의 줄임 말로 동방정유리세계(東方靜瑠璃世界)의 교주(敎主)로 중생의 온갖 병고를 치료해 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현실구복(現實救福)의 성격을 지닌 부처님이다.

길이 364㎝ 폭 202㎝로 화면이 세로로 긴 구도로 약사불을 중심으로 협시들의 배치가 좌우 엄격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약사불은 키형 거신광(擧身光) 광배를 갖추고 약합을 들고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형태는 원만한 얼굴에 유난히 작은 눈과 입의 표현이 매우 단아하고 온화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원만해진 얼굴, 낮은 육계의 표현에 건강해진 신체표현은 1719년 영산전 영산회상도 보다 더욱 단아해진 모습이다. 불의는 원문의 문양 이외에 다른 문양이 없이 단순하다.

약사불 수미단 좌우로 해와 달을 표식이 없는 일광(日光)과 월광보살(月光菩薩) 등 6대보살이 종열로 늘어섰는데, 보살들의 형태도 단아한 얼굴에 화려한 보관, 문양없는 천의를 입고 합장한 모습으로 모두 시선을 약사불을 향하고 있다.

상단과 하단 좌우 끝에는 약사(藥師) 12지신상(支神像)이 우락부락한 얼굴에 툭 불거진 눈망울에 투구를 쓰고 치견(侈絹)이 장식된 무복(武服)을 입었고 두손은 무기를 쥐거나 합장을 한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1719년 불화보다 세부적인 의습의 문양이든가 광배의 표현 등에서 간략화된 점을 볼 수 있으나, 약사12지신상의 율동감이 있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든가 약사불과 보살들의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은 차분하고 신비스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짙은 홍색곽 가라앉은 양녹색의 조화가 더욱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시켜 전체적으로 짜임새있는 구성력과 묘사력이 돋보이며, 강한 보색의 대비가 잘 어울린다.

② 감로왕도(甘露王圖)(圖4)

길이 250㎝ 폭 266㎝의 크기인 이 감로왕도는 부처님의 수제자인 목연존자(目蓮尊者)가 아귀도(餓鬼道)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우란분제(于蘭盆齊)의 성반을 올림으로서 지옥에 빠진 부모가 지옥의 고통을 여의고 극락왕생한다는 우란분경의 내용을 도상화한 것이다.

상단에는 극락의 아미타불의 일행이 지옥의 중생을 맞이하러 오는 장면을, 중앙과 하단에는 성반의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2구의 아귀를 그리고 그 좌우에는 갖가지 지옥과 현실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상단에는 인로왕보살,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아미타삼존불과 6여래, 삼존불과 지장보살 등이 나란히 횡렬로 서 있다. 아미타불의 일행을 크게 묘사하고 상대적으로 아귀나 지옥과 현실 세계를 작게 묘사하여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한 인로왕보상과 아미타삼존불, 기타 여래의 주위를 구름과 암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천상세계의 구분을 뚜렷하게 해준다.

중앙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진 성반의식 앞에 2구의 아귀가 묘사되었고, 주위에는 지옥과 현실생활의 장면이 작고 복잡하게 묘사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각 장면의 인물의 표현은 개성있는 얼굴 표정과 정체된 듯한 동작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엿보이게 한다. 또한 배경을 암산과 수목으로 처리하였고, 최하단에서는 장면을 생략시키어 수목으로 처리한 점은 번잡스럽게 않게 공간을 처리한 뛰어난 구성을 보여준다.

이 불화는 극락세계는 장엄함을 부각시키고자 밝은 진홍과 톤이 가라앉은 양녹색을 주조색으로 쓰고 배경을 황토색으로 처리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③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圖5)

이 삼장보살도는 길이 226㎝ 폭 319.5㎝의 크기로 천장보살(天藏菩薩)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의 3보살 법회를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3신사상을 도상화한 것이다.

천장보살의 권속은 진주(眞珠)· 대진주보살(大眞珠菩薩) 및 사천공(四天空), 십팔천(十八天), 일월천(日月天) 등 천부중(天部衆)이 배치되고, 지지보살은 용수(龍樹)·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 및 여러 신중들을 그리고 지장보살은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을 비롯한 십왕(十王), 제군(諸君) 등이 배열된다. 천장보살은 설법인을 지지보살은 왼손에 경책을 지장보살은 보주 등의 각각의 지물을 들고 있다.

화면 상단에 3보살의 세계를 도상화하고 하단에는 3보살의 권속들을 각각 시립하고 있는 일반 보편적인 삼장보살도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보살의 모습은 이중윤광 광배를 갖추고 결가부좌한 안정된 자세로, 얼굴 형태는 갸름한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耳目口鼻)의 묘사는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을 보여준다. 화려하게 치레한 가사와 지장보살에서의 격자문 문양과 영락 장식, 화려한 보관 등에서 능숙한 세련미를 보여준다. 광배 주위로 에워 싼 기타 인물들도 개성있고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하단에 배치된 주요 협시들도 3보살과 같은 단아한 얼굴이며 의습 등을 분명하게 처리하였고 보살들과 삼각형구도를 이루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인물의 침착한 분위기와 아울러 차분하고 능숙한 세련된 필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밝은 진홍과 녹색, 양녹색이 한데 어울려져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시키고 있다.

④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圖6)

이 관음보살도는 길이 240㎝ 폭 172㎝로 중생들의 모든 고난을 구제하여 안락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구제자인 관음보살을 묘사한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는 정면관을 취한 수월관음보살이 암석위에 반가좌의 모습으로 앉아 있고 그 아래에는 청문을 청하는 선재동자(善財童子)와 여의주(如意珠)를 받쳐 든 용왕(龍王)과 용녀(龍女)가 배치된 구도이다. 이러한 점은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된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관음보살은 높은 기암괴석위에 반가좌의 자세로 이중윤광의 광배를 갖추고 있는데 신광부분은 희미한데 거기에 정병(淨甁)이 배치되어 있다. 얼굴 형태는 약사불회도와 같이 갸름한 얼굴에 작게 묘사한 이목구비(耳目口鼻)는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을 엿보이게 한다. 한손은 기암괴석을 짚고, 또 한손은 무릎에 살짝 얹고 두다리는 반가좌하여 편한 모

습을 보여준다. 화불을 봉안하고 많은 영락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장식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있고, 가슴에 영락장식이 길게 늘어져 있어 장식적인 의도가 두드러져 보인다. 천의의 복잡하고 구불거리는 곡선의 흐름은 약간 도식적이다.

하단 왼편에는 선재동자가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서 있고, 천의자락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다. 오른편에는 여의주를 받쳐든 용왕과 용녀의 배치는 화면을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준 뛰어난 구성미를 보여준다.

채색은 진홍과 양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배경을 황토색으로 처리하여 화려하고 선명한 색조를 이루고 있다.

3)괘불화(掛佛畫)(圖7)

괘불화는 석가탄신일(초파일)이니 수륙재(水陸齋)나 영산재(靈山齋) 등 큰 의식법회 모임이 있을 때 절 앞마당에서 괘불지주대에 불화를 모시고 많은 대중이 모여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불화이다.

이 괘불은 길이 1207㎝ 폭 820㎝에 달하는 대형불화를 대웅전 소장불화가 같은 시기인 1730년에 조성된 것이다.

형식은 석가오존불(釋迦五尊佛)로 화면 가득히 석가불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서 있고, 문수보현보살 위로 화불,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석가불은 키형 거신광 광배를 등지고 낮은 육계에 큼직한 보주를 장식하였고, 원만한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耳目口鼻)의 표현은 대웅전이나 영산전에 소장된 불화의 단아한 인상에서 당당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차츰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당한 어깨에 유난히 긴 손 등에서는 도식적인 면이 엿보인다. 가슴에는 만(卍)자 표시와 화려한 우견편단의 불의에 묘사된 여러 가지 보상화, 원문(圓紋), 화문 등의 문양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의도가 뚜렷하다.

좌우에는 문수와 보현보살이 각기 연꽃가지 등의 지물을 들고 서 있고 석가불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화려한 보관과 천의에 나타난 각종 문양도 역시 장식적인 의도를 엿볼수 있다.

상단에 배치된 백의관음과 대세지보살은 화불과 같은 크기로 묘사했고 본존을 향해 합장하고 있다.

이 괘불화는 석가삼존불을 중심으로 하여 화면 가득히 크게 표현하고 나머지 2구의 보살은 작게 그린 석가삼존불을 강조한 뛰어난 구성미를 보여준다. 색채도 주조색인 적색과 녹색에 분홍색과 밝은 청색을 가미하여 화려하게 보인다. 한편 양녹색의 사용은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보다는 화려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 Ⅲ.의겸(義謙)의 생애(生涯)와 화풍(畫風)

의겸은 숙종조에서 영조조에 걸쳐 활약한 화사승으로 지리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활약했으며 남아있는 작품으로 보아 활동기간은 약 40여 년 정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화사승에 관한 일대기는 조선시대 화승의 기록이 전무한 만큼 현존하는 17점의 불화 이외에 어느 문헌 자료에도 찾아 보기 힘들다.

한편 『槿域書畫徵』에 의하면 석상겸(釋尙謙)과 석유겸(釋有謙)의 기록이 보이는데, '겸(謙)'자 돌림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8)]

상겸(尙謙)은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 용주사 불화는 정조 14年(1790)에 조성했는

데, 용주사 대웅전 삼세불화는 화원(畫員) 연풍현감(延豊縣監) 김홍도(金弘道)가 그렸고, 삼장보살도는 화원(畫員) 석민(釋敏)이 하단불화(下壇佛畫)는 화원 상겸이 그렸다고 한다.[9] 그러나 상겸은 용주사 대웅전 삼장보살도(1790년)와 충남 예산군 향천사(香泉寺) 대웅전 지장보살도(1782년)를 그린 작품이 현존하고 있는데, 단아한 얼굴 표정과 홍색과 녹색의 조화 등에서 의겸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10]

유겸(有謙)은 화원승(畫員僧)으로 불화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의문(衣紋)이 가장 복잡하고 난공(難工)인 사천왕상을 잘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이 없어 그의 화풍을 짐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1]

이밖에 직지사 불화에도 '겸(謙)' 또는 '겸(兼)' 자를 쓴 화사가 보이는데, 웅진전 신중화(1789)를 그린 만겸(萬謙)과 대웅전 신중화(1797)를 그린 신겸(信兼)을 들 수 있다.[12] 이들은 의겸이 자주 쓰는 주조색인 홍색과 녹색의 조화와 필선의 사용에 있어 생동감 있는 세선, 담채적인 경향, 인물의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 등에서 의겸의 화풍을 엿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작품의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유겸화풍의 계보를 밝히는데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의겸의 현존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 | 寺刹名 | 佛畫名 | 年 代 | 畫師名 | 備考 |
|---|---|---|---|---|---|---|
| Ⅰ기 | 慶南 | 雲興寺 靈山殿 | 靈山會上圖 | 康熙58年(1719) | 片手 | |
| | | 雲興寺 靈山殿 | 八相圖 | 康熙58년(1719) | 畫員 | |
| | | 淸谷寺 | 掛佛畫 | 康熙61년(1722) | 畫員 | |
| | 全南 | 松廣寺 應眞殿 | 靈山會上圖 | 擁正 2년(1724) | 金魚 | |
| | | 松廣寺 靈山殿 | 靈山會上圖 | 擁正 3년(1725) | 金魚 | |
| | 全北 | 實相寺 | 地藏菩薩圖 | 擁正 4년(1726) | 畫員 | |
| | | 安國寺 | 掛佛畫 | 擁正 6년(1728) | 畫員 | |
| Ⅱ기 | 慶南 | 雲興寺 大雄殿 | 三世佛畫 | 擁正8年(1730) | 畫員 | |
| | | 雲興寺 大雄殿 | 甘露王圖 | 擁正8年(1730) | 畫員 | |
| | | 雲興寺 大雄殿 | 三藏菩薩圖 | 擁正8年(1730) | 畫員 | |
| | | 雲興寺 大雄殿 | 觀音菩薩圖 | 擁正8年(1730) | 金魚 | |
| | | 雲興寺 | 掛佛圖 | 擁正8年(1730) | 金魚 | |
| | 忠南 | 甲寺 大雄殿 | 三世佛畫 | 擁正8年(1730) | 畫員 | 義兼? |
| Ⅲ기 | 全北 | 開巖寺 | 掛佛畫 | 乾隆14년(1749) | 金魚 | 尊宿 |
| | 全南 | 泉隱寺 七星閣 | 七星佛畫 | 乾隆14년(1749) | 金魚 | 義兼 |
| | 全北 | 實相寺 金堂 | 極樂會圖 | 乾隆14년(1749) | 畫師 | |
| | | 實相寺 | 天龍畫 | 乾隆17년(1752) | 金魚 | |

8) 윤열수,『괘불』대원사,1990. 103~109쪽
9) 『槿或書畫徵』,卷4 鮮代編 英祖 '釋문寬 釋尙謙' 條 ,195쪽
10) 文化財硏究所,『寺刹所藏佛畫調査』Ⅰ,1989. 19~22쪽
11) 『槿或書畫徵』,卷 4 鮮代編 英祖 '釋有謙' 條5. 195쪽
12) 文化財硏究所, 『寺刹所藏佛畫調査』Ⅱ, 1990. 59~61쪽

의겸이 활약한 시기를 현존하는 17점의 작품으로 보아 3시기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Ⅰ기(1710～1730년) : 편수(片手)에서 서원(書員) 또는 금어(金魚)로 활약하는 도약의 시기

Ⅱ기(1730～1740년초) : '존숙(尊宿)'의 칭호를 받기 시작하는 전성기

Ⅲ기(1740말～1790년) : 노숙기

운흥사 영산전 소장 불화는 Ⅰ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서원(書員) 광구(廣口)의 조수 시절인 편수(片手)에서 화원과 금어 등 우두머리가 활약하기 시작되는 시기이다. 구도는 화면의 크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많은 인물들을 그렸지만 번잡스럽지 않게 표현하였다. 본존의 인물 형태는 갸름한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耳目口鼻)를 묘사하여 단아한 표정을 하고 있고 협시인물들은 독특하고 개성있는 표정을 잘 연출하고 있다. 색채는 짙은 홍색과 양녹색의 보색 대비가 강한 편이다. 필선은 가는선을 자유스럽게 사용했으며 문양 등은 비교적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Ⅱ기는 완전하게 화원 금어로 정착한 시기로써 운흥사 대웅전 불화 및 괘불을 조성하여 전성기를 이룬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구도는 Ⅰ기보다 안정된 구도를 보여준다. 인물형태는 본존과 보살들을 단아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耳目口鼻)에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고 기타 사천왕상이나 12지상의 얼굴은 눈을 부릅뜬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색채는 1기보다 밝은 양녹색과 홍색의 대비가 차분한 톤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 필선도 가는 선으로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고 문양은 괘불에서 볼 수 있듯이 화문, 원문, 격자문 등 문양을 구사하고 있다.

Ⅲ기는 운흥사 인근지역인 전라도일원 사찰에서 활약한 시기로써 천은사 칠성각의 칠성불화와 같은 독특한 도상을 보여주는 시기로 단아한 얼굴형태에 채색은 양녹색의 사용은 거의 없고 밝은 녹색과 홍색의 사용을 담채에서 진채의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Ⅳ. 맺는말

의겸의 화풍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불교회화의 주제를 다양하고 화면에 어울리는 개성있는 구도를 연출하였다. 예를 들면 영산전 영산회상도, 팔상도, 관음보살도, 감로왕도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영산회상도와 같이 옆으로 긴 화면의 구성, 팔상도에서의 여러 장면의 복잡한 면을 탈피시킨 구성, 관음보살도의 선재동자와 용왕과 용녀의 적절한 배치, 감로왕도의 지옥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 괘불화에서의 석가삼존불의 의도적인 묘사 등이다.

둘째, 의겸이 주로 사용하는 채색은 밝은 진홍과 양녹색으로 강한 보색대비를 이루는데 거기에 황토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진채가 아닌 담채로 처리하여 이와같은 분위기를 더욱 잘 묘사하고 있다.

세째, 불화의 주존불과 보살들의 얼굴 형태는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의 묘사는 의겸이 지닌 독특한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네째, 불화의 내용을 여러 장면으로 구분할 때 암산, 기암괴석, 수목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장면을 번잡스럽지 않게 하고 있다.

운흥사의 소장불화에서 위와같은 양식적인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의겸의 유파는 상겸(尙謙), 유겸(有謙), 만겸(萬謙), 신겸(信兼) 등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것으로 보여지며 활동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활약한 대

단한 인물로 보여지나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며 이들 작품이 발견되어야 만이 확실한 계보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圖1) 靈山殿 靈山會上圖

圖 1)영산전 영산회상도(靈山殿 靈山會上圖)

圖2－1) 靈山殿 八相圖 兜率來儀相

圖2-1) 영산전 팔상도 두솔래의상 세부(靈山殿 八相圖 兜率來儀相 細部)

圖2－2) 毘藍降生相

圖2-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圖2－3) 四門遊觀相

圖2-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圖 2-3) 細部

圖2-3) 세부(細部)

圖2-4) 踰城出家相

圖2-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圖 2-5) 雪山修道相

圖2-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圖 2-5)의 細部

圖 2-5)의 세부(細部)

圖2-6) 樹下降魔相

圖2-6) 수하강마상(樹下降魔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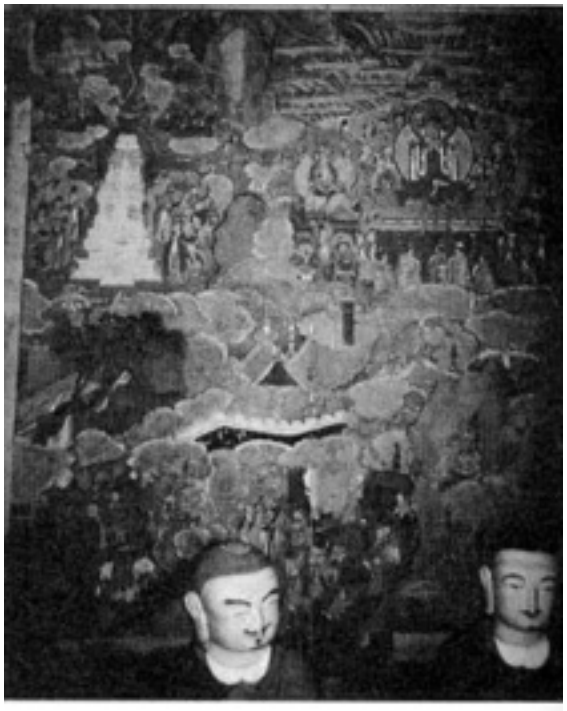

圖2-7) 毘野轉法相

圖2-7) 비야전법상(毘野轉法相)

圖2-8) 雙林涅槃相

圖2-8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圖 2-8)의 細部

圖2-8의 세부(細部)

圖3) 大雄殿 藥師佛會圖

圖3) 대웅전 약사불회도(大雄殿 藥師不會圖)

圖 3)의 細部

圖3)의 세부(細部)

圖4) 대웅전 감로왕도(大雄殿 甘路王圖)

圖5) 대웅전 삼장보살도(大雄殿 三藏菩薩圖) (지장보살 부분)

圖6) 대웅전 관음보살도(大雄殿 觀音菩薩圖)

圖7) 괘불화(掛佛畫)